

가정의 달 5월 야외에 나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서점에 들러 가족, 친구에게 선물할 책을 고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친구, 부모님께 어울리는 맞춤형 책.

선물하기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 엄마가 ..... 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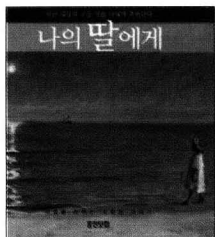
— 《금빛 꼬끼리》



이와세 쇼코 지음 | 서혜영 옮김 | 문원 | 192쪽 | 값 7,000원

열세 살 소녀의 성장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나'라는 주인공은 엄마 가발을 쓰고 나가거나 가출을 하는 등 엉뚱한 행동을 보여주지만 교과서처럼 살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살아갈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착한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책임감 있는 친구들로 커가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사춘기 소녀의 하나의 첫사랑 이야기가 풋풋하게 그려져 있어 사춘기를 맞는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책입니다.

— 《나의 딸에게》



헬렌 엑슬리 엮음 | 공경희, 노은정 옮김 | 웅진닷컴 | 88쪽 | 값 8,000원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림과 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책에는 화가들의 명화와 일러스트, 시와 명언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길지 않은 글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전하는 책은 바쁜 생활 중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선물책'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표지, 내부 사진, 그림들이 예쁘고 정갈하죠. 엄마가 딸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이미지와 글로써 아기자기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 《나는 주름살 수술 대신 터키로 여행간다》



수잔 스왈츠 지음 | 이해경 옮김 | 나무생각 | 296쪽 | 값 9,800원

삶에 대한 진지한 철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중년에 대한 철학적 성찰까지 심오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중년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변화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신체적으로 나이를 먹게 됨을 느끼는 중년 여성들의 에피소드가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인 사고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이 중년의 부모님께 희망을 전해줍니다.

— 《제3의 성》



여성을 위한 모임 외 지음/현암사/264쪽/값 7,500원

남성들의 눈에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아줌마' 하면 마냥 주책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아줌마는 인자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이자, 여성입니다. 이 책은 중년 여성을 비하하면서 '아줌마'라는 틀을 만든 사회구조와 교육 풍토를 비판합니다. 획일화된 여성, 남성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머니에게 자신감을 안겨주는 책입니다.

—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최시한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6쪽 | 값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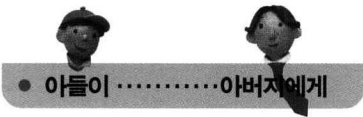
제목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누구나 한번쯤 고민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세속적인 명예를 얻길 원하는 부모님과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문을 가져보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선재의 일기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선재와 윤수 그리고 '왜냐 선생님' 등의 특별한 캐릭터가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자녀에게 새로운 친구가 되어줍니다. '살아가는 것, 배우는 것,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입니다.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보면 좋습니다.

—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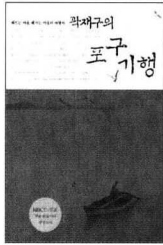


포리스트 카터 지음 | 조경숙 옮김 | 아름다리미디어 | 282쪽 | 값 6,500원

아이들은 인종이 다른 사람을 보면 낯설어 하거나 상대를 경계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권하기 좋은 책입니다. 미국사회에서 소외되고 평가절하되는 인디언의 삶과 그들의 철학을 다룬 이 소설에는 작가의 자전적 요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무의 눈을 통해 환경, 인종, 교육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백인 문명의 허위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 《곽재구의 포구기행》



곽재구 지음 | 열림원 | 230쪽 | 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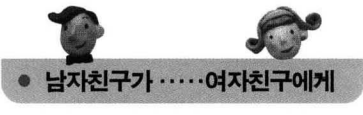
곽재구 시인의 두 번째 기행 산문집입니다. 바쁘게 지내시는 부모님께 여유를 선사할 수 있는 책이죠. 시인은 작은 포구 마을을 여행하며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지난 시간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십여 년 전에 시를 쓰기 위해 바닷가 마을을 찾았었고, 바닷가에서 삶의 원기를 되찾고 세상속으로 다시 맞물려 들어갈 힘을 얻었다는 저자의 이야기가 따스하게 전해집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버릇은 가슴 안에 깊은 말뚝을 지닌 모든 슬픈 짐승들의 운명 같은 것' 이라 말하는 시인의 목소리에서 삶의 여유가 전해집니다. 곽재구 시인이 선사하는 기행산문집을 들고 아버지와 여행을 떠나보세요.

— 《아름다운 실버》



로버트 L. 베닝가 지음 | 조민숙 옮김 | 열음사 | 244쪽 | 값 8,000원

정년 이후, 힘들어하시는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책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맞게 된 정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 등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해 왔던 일로부터 소외된다는 생각에 허탈감을 느끼는 부모님께 정년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이고, 시작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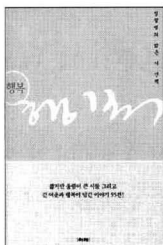
— 《100편의 사랑 소네트》



파블로 네루다 지음 | 정현종 옮김 | 문학동네 | 150쪽 | 값 7,000원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칠레의 대표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책입니다. 그가 자신의 세번째 부인에게 바친 100편의 사랑 소네트가 담겨 있죠. 민중을 위해 앞장섰던 투쟁 시인,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랑의 시인 등으로 유명한 네루다의 이야기가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이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는 네루다의 열정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입니다.

— 《행복》



정끝별 지음 | 이레 | 148쪽 | 값 5,000원

정끝별 시인이 짧은 시 산책에 나섰습니다. 시인의 평소 단상을 담아놓은 듯한 짧은 시들이 여유있는 책읽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선일보 문화면에 연재했던 시들을 모은 이 책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압축된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메모처럼, 단상처럼 쓰여진 시라 부담없이 읽을 수 있죠. 책읽기를 싫어하는 친구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힘들어하는 연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입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의 의미를 전해 주는 책입니다.

— 《떨림, 사랑》



빅토르 위고 지음 | 고두현, J.C 이사르티에 옮김 | 현대문학복스 | 152쪽 | 값 6,000원

프랑스의 대문호로 알려진 빅토르 위고의 책입니다. 위고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한 평화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세상과 인간을 매우 사랑했던 위고의 시 27편을 우리말로 옮겨 담은 이 시집은 위고의 위대한 면모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우리는 해가 저무는 하늘 저쪽을 바라보았지. 그때 우리 영혼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가. 오, 사랑, 사랑이여!” 라고 외치는 위고만의 열정어린 목소리가 감동을 전해줍니다.

— 《사랑》



김용택 지음 | 이레 | 128쪽 | 값 5,000원

한국 설화 속 사랑이야기부터 현대 문학작품에서 드러나는 사랑 이야기까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수줍은 사랑의 목소리부터 현대 시인들의 시에서 드러나는 직설적인 사랑의 표현까지 각 시대별 사랑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 서글픈 기다림 등 다양한 감정을 느껴본 시인들의 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연인과 함께 보기 좋은 책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들, 세상의 아름다움 등을 전해줍니다.

정리 김청연 기자

